

# 우리의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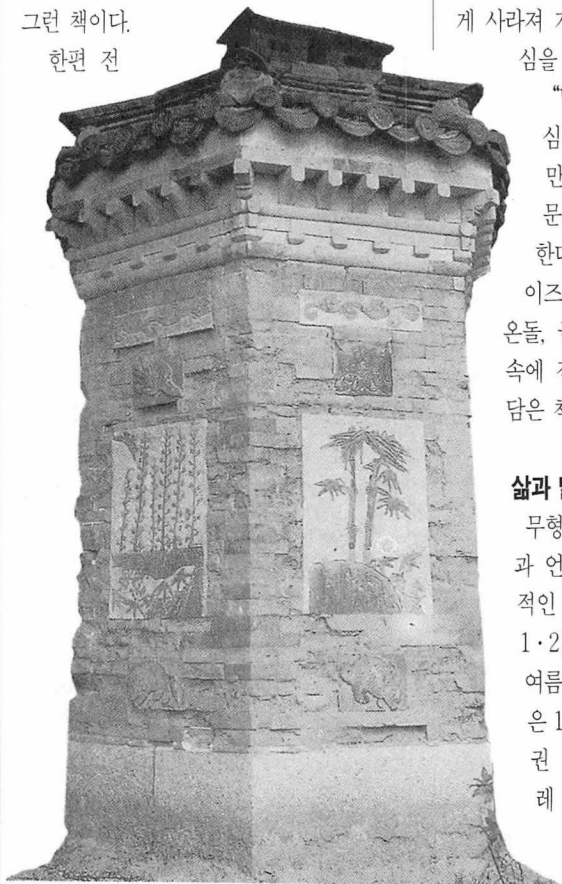
지역별 · 주제별 내용 세분화 ... 무형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 부쩍 늘어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유적 관련서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는 주제 표어처럼 ‘문화재를 알고 찾기’ 위한 책들이다. 유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책을 들자면 93년 출간된 유희준 교수(영남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재치있는 입담과 풍부한 전문지식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이 책 이후로 ‘답사기’ 류의 책이 쏟아졌다. 조금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생생한 현장감을 살린 답사기는 여전히 매력적인 형식이다.

## 산성 · 왕릉 · 궁궐에도 관심 기울어

최근의 답사기는 지역별, 주제별로 그 내용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는 왕릉을 한자리에 모은 《왕릉》(문원), 성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강원도의 산성을 순례한 《강원도 산성기행》(진용선, 집문당), 산 속에 들어앉은 작은 사찰만을 모아 놓은 《우리산 옛절》(김장호 · 김승호, 대원정사)이 그런 책이다.

한편 전



경복궁 아미산 굴뚝.

문가들의 저술로 내용의 깊이를 더한 책들도 선보였는데, 문화재전문위원인 류시원씨가 《풍운의 한말역사산책》(문원)에서 조선 왕조의 몰락을 함께 한 윤현공의 역사를 더듬었고, 10년 동안이나 연구에 몰두해 온 유봉학교수(한신대)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계획도시 화성(수원성)의 구성과 변화과정을 살핀 《꿈의 문화유산, 화성》(신구문화사)을 펴냈다. 장소를 이동하는 답사기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윤용이, 학교재)는 국립박물관 소장품 중 30-40%를 차지하고 해외 유명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유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도자기를 ‘알고 보기’ 위한 길잡이다.

이들 책은 그동안의 답사기가 불교사찰기행으로 대중을 이룬 것과도 비교된다. 삼국시대 불교 전래 이후 국가 지배이념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교의 예불장소인 사찰과 예불대상인 불상 및 불교미술품들이 다른 유적에 비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최근의 책은 사찰이나 불교유적보다 쉽게 사라져 가는 산성, 왕릉, 도시, 궁궐에 관심을 기울인다.

“답사기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하지만 유형의 것만이 문화유적은 아니다”고 한국 문화유산답사회의 김호형씨는 말한다. 외래문화의 태풍이 몰아치는 이즈음, 장승제나 당산제 등 제의와 온돌, 금줄, 민요 같이 우리 일상문화 속에 잠복해 있는 무형의 문화유적을 담은 책들은 반갑기만 하다.

## 삶과 밀접한 정신문화도 다뤄

무형의 민속을 현재 우리들의 느낌과 언어로 되살린 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2》(주강현, 한겨레신문사). 96년 여름에 펴내 6개월만에 10만부를 찍은 1권에 이어 최근 2권이 나왔다. 2권 역시 장승 · 도깨비 · 풍물굿 · 두레 등 민중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민속문화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어 보인다. 주강현씨는 “서구우월주의의

편견에 주눅든 우리 문화가 민속을 통해 긍지를 되찾기 바란다”고 밝힌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조유전)에서 펴낸 《한국 민속문화의 탐구》도 호랑이 · 탈 · 부적 · 부채 · 온돌 · 기우제 같은 생활에 밀접한 우리 민속 고유의 원형을 찾아나선다.

답사기로 오해하기 쉬운 제목을 가졌지만 《나의 양반문화 탐방기》(윤학준, 길안사)는 죽보 · 온돌 · 사랑방 같은 전통문화가 갖는 의미를 짚고 있다. 가장 최근 출간된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최은식, 민속원) 역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현상이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가를 보여준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인 출판 움직임 가운데 새로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화유산의 발굴 · 소개를 주내용으로 한 책들이 오히려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답사기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손길이 타면서 유적들이 제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이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경주 · 공주 · 부여 등의 문화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보존법’의 제정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의 책들은 문화유적의 효과적인 보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

## 문화유산 보존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개발과 유산의 보존》(김용정 외, 숲)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설악산에 모노레일 설치 건이나 가야산국립공원에 해인골프장 건설 등에서 드러난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국제적인 제도와 사례를 통해 조명해 준 책이다. 일제하의 문화재 훼손과 도난을 살피본 《한국문화재 수난사》(이규열, 돌베개)도 문화재 보호의 절박성을 일깨운다.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유물발굴의 뒷얘기를 소상히 밝힌 《고고학 이야기》(이선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인 책들이 부쩍 늘고 있다. 답사기는 지역별, 주제별로 세분화하는 경향이고 불교유적 일색에서 산성이나 궁궐 · 왕릉에 관심을 기울인다. 또 일상문화 속에 잠복해 있는 무형 문화재를 다룬 책들도 반갑다.

상주 남장사 들장승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2》  
중에서.

복, 가서원)와 《발굴이야기》(조유전, 대원사)도 마찬가지. 고속철도가 경주를 지나 가도록 한 결정, 문화재의 보전 · 전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배려없이 박물관을 때려부수기부터 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문제 등에서 보여준 행정당국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 화성》에서 저자는 계획도시 화성의 경제적 기반으로 건설된 만석거의 매립, 수원천 · 남수문의 복개에 반대하면서 “수원성 2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훼손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우리 문화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은 중앙 · 지방 어느 곳에 서나 해야 할 일이다. 각 지방의 특징적인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펴낸 문화유적순례 안내서 같은 작업도 출판인들의 몫이다. “얼마 전 청도 유림장을 보니, 조문 온 이들보다 사진작가들이 더 많더라”며 “무형의 문화재는 더 쉽게 잊혀지고, 자칫하면 민속경연대회에서처럼 왜곡되고 박제화된 형태로만 남게 된다”는 한 관계자의 말은 민속학 분야에서의 대중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 이현주 기자